

스티븐 크레인의 양면성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趙 哲 源

〈仁荷大學校 英語英文學科〉

I

스티븐 크레인(Stephen Crane)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그가 19세기 유럽 자연주의 작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 속에 당시 미국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허무주의에 바탕을 둔 결정론(determinism)적 철학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라즈 아네브링크(Lars Åhnebrink)가 크레인의 대표작인 『거리의 여인 매기』(*Maggie: A Girl of the Street*), 『붉은 무공훈장』(*The Red Badge of Courage*) 등을 줄라(Zola), 투르게네프(Turgenev), 입센(Ibsen) 등의 작품들과 상세히 비교하면서, 크레인을 유럽의 결정론적 자연주의 작가와 거의 비슷한 초기 미국 자연주의 작가라고 지적한 이래, 수많은 비평가들이 크레인을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작품 활동을 한 작가로 설명해 왔다.¹⁾ 찰스 월컷(Charles Walcutt)은 이미 미 비평계에 고전이 되다시피 한 그의 『미국의 자연주의 문학: 분리된 흐름』(*American Literary Naturalism, A Divided Stream*)이란 책에서 크레인을 미국의 「순수 자연주의」(pure naturalism)의 대표 작가로 단정한다 (66).

그러나, 위의 일반적인 지적은 크레인을 피상적으로 기술한 문학사에서나 나올 수 있는 개론적인 평가는 될 수 있어도,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을 그리려 했던 크레인의 진정한 노력을 간과해 버릴 위험이 있다. 특히 크레인이 시대의 혼란 속에 뛰어들어 열악한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 했음에도, 그 속의 개개의 작은 인간들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며,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을 세밀하게 그리려 했던 작가이었기에, 위의 일반화는 크레인을 일군의 작가로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명쾌함 말고는 크레인을 바로 알게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준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크레인의 작품 속에 간간이 드러나는 인간애, 우정, 인간으로서의

1) Lars Åhnebrink, *The Beginning of Naturalism in American Fiction* (Cambridge: Harvard UP, 1950). 현재도 아네브링크의 주장을 따르는 많은 비평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리 클라크 미첼(Lee Clark Mitchell)이 있다. 그의 *Determined Fictions: American Literary Naturalism* (New York: Columbia UP, 1989)를 참조하라.

책임 등의 인본주의적 색채를 강조하여 크레인을 휴머니스트라고 규정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맥스 웨스트부룩(Max Westbrook)이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크레인의 작품들에서 미국 초절주의자의 대표적인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전통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한 이래로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크레인을 「순수 자연주의」 작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흐름이 있어 왔다.²⁾ 특히 크레인의 유명한 전기 작가 중의 하나인 R.W. 스텔만(R.W. Stallman)이 『붉은 무공훈장』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를 기독교와 연결시켜 분석한 이래로, 미 비평계가 헨리 플래밍(Henry Fleming)의 성장, 난파선에서 보여 주는 인간애 등, 크레인 작품 속의 밝은 면에 대한 강조를 가속화한 것도 사실이다.³⁾

그러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무언가 추구했던 일련의 프로메테우스적인 크레인의 독특한 삶과 불굴의 작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비평계의 일반화는 문제가 있다. 현실과 이상의 세계에서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등장 인물들의 갈등, 고뇌 등을 통해 작품화하려 했던 크레인에게는 냉혹한 환경과 인간의 필사적인 추구 둘 중 어떤 한 쪽도 쉽사리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없는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반화된 시각에서 크레인을 재단하기보다는 그의 작품의 치밀한 전개 속에 그려지는 작중인물들의 고뇌와 더불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을 집중 관찰하여, 그 속에서 야기되는 문학적 긴장을 주시하는 자세가 크레인의 진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태도라고 본다.⁴⁾

한 쪽의 일반화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태도로 작품의 전개에 보다 집중을 하여, 필자는 크레인의 작가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의 초기 단편 작품집인 『셸리반 마을 이야기』(*The Sullivan County Sketches*)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단편집의 작품들은 나중에 썼던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담긴 『거리의 여인 매기』나 『붉은 무공훈장』 등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희극적인 분위기가 전 작품을 압도하면서, 독자에게 별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케이디 100-104). 사실, 작중인물들(the four men)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낙천적인 태도로 전원의 평화로운 목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미란다(Miranda)나 페르디난드(Ferdinand)와는 다르다. 인간이 우주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그들

2) Max Roger Westbrook, *Stephen Crane and the Revolt-Search Motif*. Unpublished Disserta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1960). 그 외 에드윈 케이디(Edwin Cady)와 진 까제마주(Jean Cazemajou)의 크레인에 대한 비평서들을 참조하라.

3) R.W. Stallman, *Stephen Crane: A Biography*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8)

4) 도널드 파이저(Donald Pizer)는 『거리의 여인 매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종래의 자연주의 결정론을 기초로 한 독서를 거부하고 주인공 매기의 일련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긴장에 초점을 맞춘다 (1-18).

은 자신의 직접 경험 혹은 고뇌를 통해 알게 된다. 또한 작품의 주무대인 썰리반 마을이란 전원도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도시 앞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들은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다. 비록 크레인의 진수로 여겨지는 아이러니, 상징적 이미지 등의 문학적 기법이 아직 충분히 계발되지 않았고 회극적 상황이 작품을 압도했다라도, 작가의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작중인물들의 고뇌와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케이디의 평가처럼 작중인물들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낙천적으로 전원을 즐기며 삶을 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엄습해 오는 도시의 힘 앞에 그 전원도 허물어질 수 있다고 때때로 느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존재했던 우주의 어쩔 수 없는 파괴적인 힘도 이해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편안하게 보이는 전원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은 늘 긴장감을 느끼며 살았다. 이렇듯이, 크레인은 초기 작품 시절부터 인간사의 양면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썰리반 마을 이야기』는 그 후 계속해서 발표되었던, 『거리의 여인 매기』, 『붉은 무공훈장』, 전쟁소설, 모험소설, 서부 소설 등에서 고뇌하는 작중인물들의 창조에 있어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II

『썰리반 마을 이야기』는 크레인의 후기 걸작들과 비교하여 작품 내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단순하고 맥빠진 등장 인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여기에서 크레인은 가벼운 주제를 우스꽝스럽고 장난기 어린 문체로 다룬다. 그래서 스톨만은 이 작품들을 “보잘것없는 것들”(slight things)이라 평하며 무시했다(41). 심지어 크레인조차도 『붉은 무공훈장』으로 그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에 『썰리반 마을 이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drop them into a wastebasket) 싶다고 했을 정도였다(469). 허무주의 결정론을 바탕으로 한 어두운 색조가 짙게 깔린 크레인의 대표작인 『거리의 여인 매기』, 『붉은 무공훈장』, 『난파선』(*The Open Boat*) 등과 비교하면, 『썰리반 마을 이야기』는 분명 크레인의 작품 가운데 여러 면에서 예외에 속하고, 질이 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의 작중인물들은 마치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순진인의 노래』(*Songs of Innocence*)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천진스럽게 놀이를 마냥 즐기며 아무 고민 없이 낭만적 전원을 즐길 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도 크레인이 작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썰리반 마을 이야기』 속의 단편 가운데의 「동굴 속의 네 남자」(“Four Men in a Cave”)나 「헉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The Cry of Huckleberry Pudding”) 등에서 크레인의 후기 문학적 숙달의 전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스꽝스럽고 낙천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썰리

반 마을 이야기』에서도, 크레인 은 우주의 인간사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인간사에서 우연이나 운명의 역할—이들은 크레인에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등을 문학적 긴장감을 야기하면서 간간이 그리고 있다. 「최면의 산」(“The Mesmeric Mountain”)이란 작품에서는 인간의 허영, 두려움, 자기기만 등이 자연이나 다른 이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묘사된다. 또한, 크레인은 썰리반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인들을 생생히 그렸을 뿐 아니라, 그들을 풍자하기도 했다. 이렇게 초기 작품 활동에서부터 나타나는 크레인의 폭 넓고 깊이 있는 주제를 향한 과감한 시도 없이는 그의 후기의 “예술적 승리”(aesthetic triumphs)는 불가능했을 것이다(터틀턴 50).

III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첫 번째 단편인 「동굴 속의 네 남자」는 크레인의 초기 작품의 일반적 특성인 낙천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익살스럽고 희극적인 필치로 네 명의 작중인물들이 평화로운 숲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크레인의 소설에서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작중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단순히 「난장이」(the little man) 혹은 「똥똥이」(the pudgy man)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날 그날을 순탄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한적한 ‘썰리반’ 숲을 방문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별 의미를 주질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앞으로 큰 사건이 될 동굴 속으로의 탐험도 단순히 현재 무료함을 달래고 “도시로 돌아갔을 때 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 주고 숲 속에서의 생활을 빼기기 위해서 일 뿐이었다(66).⁵⁾

그러나, 이렇듯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야기에서도 독자는 작가로서의 통찰력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를 작품의 후반에 나오는 동굴로의 탐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동굴 속으로의 탐험이었지만, 등장 인물들은 탐험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도해 오는 두려움의 공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난장이가 “붉게 타오르는 불빛과 검은 연기”를 보았을 때 되돌아가자고 외쳤지만, 한 번 동굴에 발을 디딘 이상 그들은 바램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고 깊고 신비로운 듯이 보이는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호오돈(Nathaniel Hawthorne)의 굤맨 브라운(Goodman Brown)이 탐험 초기에 웨이드(Faith)가 타락한 모

5) 이 논문에 나오는 크레인의 작품에서의 본문 인용은 *The Complete Short Stories and Sketches of Stephen Cran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3)을 따랐다. 앞으로 본문 인용이 필요할 때는 괄호 속에 페이지 번호만을 표시하겠다.

습을 보고 인간성에 대해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두운 숲을 탐험해야만 했던 것과 같다. 마침내 갑자기 그들은 깊은 구멍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이상 돌아갈 가망성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스스로가 남에게서 나약하게 평가받기를 두려워하면서, 거꾸로 남을 비난하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크레인은 날카롭게 포착하여 묘사한다. 비록 “살이 뼈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포심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 바보야, 너 두려워하는구나”하고 놀리면서 자신들이 겁장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경계할 뿐인 것이다(67-68). 즉 그들에게는 한 치 앞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며 남을 비난하고 헛된 자신만을 계속 고집할 뿐인 것이다.

그들의 두려움은 마침내 그들이 동굴 속의 은둔자를 만났을 때 극에 달한다. 크레인은 네 명의 작중인물들의 두려움에 싸인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네 사람)은 급히 꺼안고 두려운 시선을 그들 어깨 너머로 던진다.

“흡혈귀다!” 한 사람이 외쳤다.

“귀신이다!” 또 다른 사람이 외쳤다.

“제물로 바쳐지기 전의 두루드 귀신이다!” 또 다른 이가 목소리가 들어가듯이 중얼거렸다.

“아즈텍 마녀의 환영이야!” 하고 난장이가 말했다. (68)

이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동굴 속의 은둔자가 네 명의 동굴 탐험자에게 이 무시무시한 곳을 빠져나가려면 자신과 포커 게임(poker game)을 해야 한다며 으박지르는 장면에서 완전히 희극적으로 바뀐다. 즉 작품 처음의 밝고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극적인 장면에서도 크레인은 인간 상황의 실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네 명의 등장 인물을 통해 계속 암시한다. “도시로 돌아갔을 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원래 목적이 단순한 “허영심 많은 뽐냄”(vain pomposity)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똥똥이의 발언에 대한 난장이의 신경질적인 반응은—“꺼져 버려”—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이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첫 작품에서부터, 평화롭고 편안히 보이는 전원의 숲 속 생활 속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창조하여, 인간의 이기적이고, 헛되고, 빠지기 잘하는 태도를 크레인은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귀신의 회계원」(“A Ghoul’s Accountant”)이란 『썰리반 마을 이야기』 내의 또 다른 단편에서도 「동굴 속의 네 남자」에서처럼 크레인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굴 속의 네 남자」를 발표한 후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에 2주일의 짧은 기간 밖에 지나지 않은 다음 1892년 7월 17일에 이 작품을 게재했기에, 두 작품 사이에는 주제나 익살스러운 어조 면에서 차이를 별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크

레이인이 「동굴 속의 네 남자」를 비롯한 몇몇의 썰리반 마을 이야기들에서 작가 활동 초기에 깨닫기 시작했던 인간사의 모순되고 갈등하는 힘에 대한 이해를 문학적 긴장 속에서 작품화하여 성공했다 하면, 「귀신의 회계원」은 실패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귀신의 회계원」이 귀신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반응을 그리는 데 있어 복잡적이고 복잡한 인간이나 인간사에 대한 작가의 이해를 보여 주질 못한다는 데에 있다. 플롯 역시 너무 단순하여 인간 삶의 복잡성이나 그 속에서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 제대로 보여 주질 못한다.

「동굴 속의 네 남자」의 은둔자가 도박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듯이, 「귀신의 회계원」의 귀신 역시 산수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썰리반 마을의 무식한 원주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굴 속의 네 남자」에서 등장 인물들이 그 단순한 도박군의 정체를 몰라 두려워했듯이, 「귀신의 회계원」의 주요 등장 인물인 난장이 역시 이 단편소설의 끝까지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 또한 「동굴 속의 네 남자」의 난장이가 이야기의 끝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이 작품에서도 귀신이 난장이를 “문 밖으로 발로 차서 내쫓을” 때까지 난장이는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귀신이 투명스럽고 무식한 원주민 농사꾼이라는 것이 드러난 후에도, 난장이는 어떤 힘도 쓸 수 없었고 마침내 그 귀신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이렇듯이 「동굴 속의 네 남자」와 주제와 기교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음에도, 「동굴 속의 네 남자」와 달리 「귀신의 회계원」이 비평가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문학적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치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즐길 만한 희극적인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작품을 압도하여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의 암시를 독자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든 것이다. 또한 「동굴 속의 네 남자」와는 달리 「귀신의 회계원」에서는 등장 인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바뀐다든지 계발된다든지 하는 상호 작용이 없다는 것도 이 작품의 실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동굴 속의 네 남자」가 네 명의 등장 인물 사이에 냉소적이긴 하지만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등장 인물들 사이의 모순되고 반대되는 태도를 독자에게 끊임 없이 보여주는 데 반하여, 「귀신의 회계원」에는 난장이의 두려움에 가득 찬 어리석은 행동과 귀신의 일방적이고 거만한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등장 인물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단지 「귀신의 회계원」의 끝 부분에서 귀신이 갑자기 “1부셀에 64센트 하는 감자 33부셀이면 얼마인지 알아?” 하고 물었을 때, 계속 두려워해 왔던 난장이의 놀라는 태도에 독자는 웃음을 터뜨릴 뿐인 것이다.

「곰사살」(“Killing His Bear”)이란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또 다른 단편은 「동굴 속의 네 남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발표되었어도, 인간 심리의 복잡한 모습을 문학적 긴장을 통해 보여주는 훨씬 우수한 작품이다. 최근 크레이인의 전기 작가인 크리스토퍼 벤피(Christopher Benfey)도 이 작품을 “포우(Edgar Allan Poe)와 같은 기묘하고 무시무

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썰리반 마을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한다(56). 크레인은 사냥군의 이야기인 「곰사살」에서 앞의 작품들에서와는 달리 전원적인 생활이나 등장 인물의 그 속에서 기괴한 행동 등의 사실적이고 인간 외적인 모습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신 난장이가 심하게 동요하는 심리 긴장 상태의 묘사에 이야기 전개의 초점을 맞춘다. 즉 난장이가 홀로 무시무시한 곰을 만났을 때, 건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스스로 곰을 용감하게 죽이겠다는 일시적인 영웅적 기분이 묘하게 혼합되어 스스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동요하는 난장이의 심리상태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난장이가 두려워 도망치려는 충동과 곰을 멋지게 사살하여 영웅이 되려는 생각 사이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의 묘사 때문에, 스톨만은 「곰사살」과 『붉은 무공훈장』과 유사성을 지적했고, 심지어 난장이는 “헨리 플레밍과 거의 똑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2).

「곰사살」의 시작 부분에 크레인은 “성급하게 발을 뚱뚱 구르며,” 표정은 “차갑게 굳은 상태”로 친구들과 곰 사냥 나온 것을 후회하는 난장이의 모습을 묘사한다(84). 그러나 이렇게 겁에 질린 사냥군도 사냥개가 우렁차게 짖는 소리에 고무되어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이루어 내겠다는 생각도 간간히 하게 된다. 그는 마치 나라를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 병사처럼 내부에서 “피가 끓어오름”도 느끼며 “전쟁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85). “수천 가지의 상황 속에서 수천 가지의 태도를 보일 자신의 모습이 그의 머리 속을 스쳐 간다”(85). 그러나, 이런 일시의 흥분된 감정이 가라앉자, 그는 두려움에 떨며 “환영처럼”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맹렬히 부르짖는 곰의 생생한 모습을 독자가 접했을 때 이야기 전개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된다. 사냥군과는 달리, 곰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어색함도 없고 자신 앞에 놓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마침내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난장이가 충으로 곰을 죽이고 그 기쁨에 환호를 지르게 되며, 이제껏 고조되어 온 이야기의 긴장감은 일시에 풀린다. 여기서 우리는 크레인의 계속적인 난장이의 묘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난장이는 조심스럽게 곰에게 다가가서 죽은 상태를 확인하고는 곰에게 발길질을 한다. 주인공이 두려움과 영웅심 사이에서 동요하였기에, 그의 곰사살 후에 주의 깊고 소심한 반응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난장이가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유치하고 비인간적으로 죽은 곰을 발로 차는 장면은, 그의 영웅주의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⁶⁾ 주위의 칭찬을 듣고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붉은 무공훈장』의 헨리 플레밍과 같이 위험이 닥쳤을 때 충을 썩서 곰을 우연히 사살한 것뿐인 단순한 행동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미성숙을 그대로 드러내는 난장이의 거만한 태도를 통해 크레인이

6) 이 장면은 『붉은 무공훈장』에서 헨리 플레밍이 전우가 옆에 쓰러져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연대기(the regimental flag)를 들고 적진에 뛰어드는 장면과 유사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는 짐작할 수 있다.

난장이는 다시 한 번 환호를 지르며 앞으로 뛰어갔다. 마치 수 천명의 환호에 대답하듯이 자신의 모자를 흔들며 대면서 나아갔다.(86)

즉, 난장이가 성취한 자의 미소를 띄우며 죽은 꿈의 갈비뼈를 발로 내리치는 장면은 그의 잔인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취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한 우연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난장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이 단편은 보여주는 것이다.

윌리엄 딘 하웰즈(William Dean Howells)의 『거리의 여인 매기』에 대한 평을 인용하면서, 데이비드 헬리버튼(David Halliburton)은 「곰사살」이 “인간의 운명을 묘사하는 그리스 비극의 위대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극찬한다(26). 헬리버튼의 평은 난장이의 강력한 총 앞에 직면한 무기력한 꿈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 난장이가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고려해 볼 때 주인공의 비극적인 인식(tragic realization)과 성숙함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 비극의 수준까지는 「곰사살」은 결코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난장이는 자신의 행동을 이끈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지식하고, 거만하며, 단순히 빠기기를 잘하는 주인공으로 끝까지 남기 때문이다.

다음 단편인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만을 일삼으며, 자신 주위의 것밖에 모르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한계 있는 모습을 그린다. 주제는 이렇게 크고 거창하지만, 다루는 소재는 난장이가 복통을 일으켜서 밤중에 울부짖는 모습과 원인을 모르고 그 음산한 소리를 두려워하는 등장 인물들의 어린아이 같은 반응 등의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다. 앞에서 분석한 세 개의 작품과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의 발표 사이에 크레인에게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는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김슨(Donald Gibson)이 주장하듯이,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은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네 명의 등장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 새로움이 없다”(16).⁷⁾ 비록 다른 셸리반 마을 이야기에서처럼 크레인의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인간의 이기적이고 잘난 체하는 특성을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드러내면서 부분적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야기시켰다 할지라도, 밋밋한 이야기 전개와 성장 발전이 없는 등장 인물의 묘사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루질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크레인의 세계관의 형성 혹은 점진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다른 셸리반 마을 이야기에서와 같은 문학적

7) 계속해서 김슨은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에는 치밀한 플롯도 없고 이야기 전개에 초점이 흐려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작품을 “실패작”(failure)이라 단정한다(16-17).

긴장을 이 작품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들지만,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은 인간에 대한 크레인의 통찰력을 다른 어떤 작품보다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은 평화롭게 보이는 썰리반 숲 속에서 난장이의 친구들이 난장이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빼기는 헝클베리 푸딩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92). 여기서 화가 난 난장이는 “은혜를 모르는 바보들”이라 하면서 친구들을 비난한다. 그 후 난장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잠들었을 때, “미지에서 들려 오는 부르짖음”이 잠자는 자들을 밤중에 깨워 심한 두려움에 떨게 한다. 나중에 그 울부짖었던 소리가 다름 아닌 난장이가 푸딩을 먹고 복통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꾸로 난장이 친구들이 난장이를 거칠게 비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배 아파하는 난장과 캠핑을 같이하는 친구들의 우스꽝스러운 조우를 빼고는 김슨이 주장하듯이 이 작품은 새로움이라고는 없이 너무 가볍고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난장이의 가시 돋친 대답은 이 작품을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으로 만든다. 즉 난장이의 마지막 말을 통해 크레인은 인간의 우둔함과 이기적인 성향을 예리하게 풍자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명의 화가 난 난장이의 친구들이 난장이를 매몰차게 몰아붙인다. “너는 우리를 모두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 넌 정말로 귀찮은 존재야”(95). 여기서 똥똥이는 한 술 더 떠서 난장이를 훈계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그것(푸딩)을 먹지 않았어야 됐어. 그것은 최악이야”(95). 난장이의 친구들이 잠시이지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난장이에 대한 폭발적인 노여움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노여움에 대한 난장이의 마지막 응답을 통해 이 그룹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였던가를 의심하게 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난장이는 “배 아파 날뛰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은 없고 훈계나 하려 하다니”라고 외친다(96). 사실 난장이의 세 친구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현재 그들의 불평만을 토로할 뿐, 아무도 난장이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현재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만을 비난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은 숲 속에서 야영을 하면서 사이 좋게 같이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각기는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실리적인 태도만을 바탕으로 반응을 하며, 남을 보는 시야는 아주 편협하다. 난장이의 친구를 향한 간명한 응답인 “인간에게 위로는 없고 훈계”(no salve but moral teaching to a man)만을 일삼는다는 말은 초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크레인의 인간에 대한 특유의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 긴장감이 부족한 삼류 작품이라는 비난에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다.

「고함치는 나무」(“The Holler Tree”)라는 단편에서도 난장과 똥똥이가 앞의 작품에서

와 같이 하찮은 사건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이미 보았듯이 많은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거꾸로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복수를 하려 한다. 위협이 닥치는 야영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도우면서 숲 속의 생활을 즐기기보다 그들은 늘 상대방을 헐뜯으려 하는 것이다.

「고함치는 나무」는 난장이와 똥똥이의 말다툼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똥똥이는 친구들이 부주의해서 지금 자신이 머리에 이고 가는 계란이 깨질까 봐 걱정만 하고 있다. 어두운 숲길을 같이 가던 중에 난장이가 오솔길에서 우연히 넘어져 똥똥이를 밀쳐 내게 되어 계란이 깨질 뻔했을 때, 말다툼은 시작된다. 여기서 난장은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여 똥똥이에게 사과하기보다 궁지에 몰린 어려운 처지를 역전시키려고 스스로의 용기를 뽑내기 위해 죽은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고 한다. 주위에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장은 인간의 사소한 오기가 발동하여 곧 부수어질 것 같은 위험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때, 죽은 나무 내부에 있을 새들의 “둥지”를 보여 달라는 똥똥이의 냉소적인 말에 기가 죽지 않으려고 난장이가 더욱더 껍질을 부리다 그만 속이 텅 빈 나무 구멍에 빠지게 된다. 만약 똥똥이가 둥지를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친구들 모두가 그 나무 자체가 이미 죽은 나무라서 매우 위험하다고 했기에, 난장은 시도도 하지 않았고 또 나무 구멍에도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구멍 속에 빠진 난장이가 똥똥이를 욕하고 또 똥똥이는 난장의 잘난 체하는 것을 꼬집는 장면은 그들이 과연 숲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내가 여기 빠지게 된 것은 네 탓이야. 만약 네가 없었으면 난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네가 거기 구멍에 빠지라고 한 적은 없어. 네 잘못으로 빠진 거야.”

“나도 구멍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중심을 잃게 했던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똥똥이야. 네 일만을 걱정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네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여기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야.”

“네 잘못이야, 이 바보야.”(106)

크레인은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에서와 같이, 동료에게 “위로는 앓고 훈계” 내지 욕설만을 일삼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난장이가 속이 텅 빈 나무 속에서 요동을 치자 마침내는 그 죽은 나무가 넘어가게 된다. 크레인은 이 장면을 “얼굴이 두려움에 질려 하얗게 되어 도망치는 똥똥이를 화가 난 난장이가 겨냥을 하듯이 거칠고 거대한 힘을 써서 나무는 넘어갔다”라고 묘사한다(106). 마침내 그 “속이 빈,” 그리고 난장이가 놀라서 내부에서 소리 소리를 질러서 “울부짖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⁸⁾ 넘어가서, 똥똥이가 “그리도 귀중히 여기던” 바구니 속의 계란을

으깨어 놓는다. 무사히 구멍에서 나오게 된 난장이는 자신이 용기를 남들에게 과시했을 뿐 아니라, 나무가 넘어가서 친구의 계란을 깨뜨림으로써 손상된 자존심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도널드 김슨은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평에서, 난장이가 “자궁에서 나와 완전한 새사람”(a new man)이 되었다고 주장한다(19).⁹⁾ 난장이의 상징적인 재탄생이라는 김슨의 평은 이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과대 평가한 감이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대부분의 인간의 어리석고 거만 떨기를 잘하는 성격에 대한 크레인의 계속적인 묘사를 보여줄 뿐이며,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획극적인 끝맺음에 불과한 것이다. 난장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는 운 좋게 나무가 넘어져 똥똥이의 계란을 깨뜨렸을 때, 똥똥이를 복수를 했을 따름이다.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마지막 단편인 「최면의 산」(“The Mesmeric Mountain”)에서는 뒤에 발표되는 크레인의 걸작 『붉은 무공훈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등장 인물의 심리묘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주인공의 사소한 말다툼 등을 다루며 밋밋하게 풀듯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동요하는 주인공의 세세하고 정확한 심리묘사를 함으로써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어느 단편보다 「최면의 산」은 뛰어난 문학적 긴장을 야기시키면서 크레인이 계속 추구해 왔던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잘 살렸다.

이야기는 난장이가 자기 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른 크레인 초기 단편에서는 케이드의 주장대로 자연은 때때로 포근하고 인간에게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나타나지만, 앞으로 난장이가 접할 이 곳의 자연의 상징인 산은 철저히 인간사에 무관심(indifferent)하다. “텐트를 치고 흥겹게 놀고 지내는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어 “푸른 숲 속에서 불규칙하게 드러나는 시꺼먼 입구”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99-100) 난장이는 전체 광경을 조망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다. 눈에 들어온 「조운즈 마운틴」(Jones Mountain)은 그가 고함을 지를 만큼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산이었다. 난장이가 산의 정상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산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산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외칠 정도로 겁에 질린다. 마치 『프레루드』(The Prelude)에서 어린 위즈워드(William Wordsworth)가 흠친 보우트를

8) 영어에서 “속이 빈”(hollow)과 “부르짖는”(holler)은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것을 착안하여, 크레인은 여기서 하나의 단어(holler)로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 효과를 낳게 한다.

9) 밀른 홀튼(Milne Holton)도 역시 난장이가 이 이야기에서 자기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홀튼은 마지막 장면에서의 난장이가 똥똥이를 대하는 거만한 태도를 간과하였다(31). 이런 점에서 말스톤 라프랑스(Marston LaFrance)의 분석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라프랑스는 나무가 우연히 계란을 부수게 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인간사에 있어 우연의 역할을 지적한다(30).

타고 자신에게 무너져 내릴 듯한 산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배를 저어 도망갔듯이, 난장이도 산이 다가오는 듯한 모습에 놀라 숲 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크레인은 이런 긴장된 상태의 난장이의 심리를 “머리 속의 뇌가 모두 물로 변하는 것 같다”(102)라고 묘사한다. 비록 무시무시한 산을 피해 숲 속으로 도망쳤지만 난장이는 산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었다.¹⁰⁾ 일시의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자 산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에 비겁한 행동에 대해 노여움이 짝트게 되어, 난장이는 돌을 주워서 산에다 미친 사람처럼 마구 던진다. 난장이의 이 때의 심리상태는 「동굴 속의 네 남자」에서의 난장이와 같이 놀라움, 두려움, 무기력함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마침내, 구석에 몰린 난장이는 정신없이 거칠게 산을 뛰어 오른다.¹¹⁾ 이 때의 산의 정상은 난장이에게 “분노로 이끌이끌 타고르는 불꽃”으로 보이며, 그 곳을 전신의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가는 것이다(102).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독자는 난장이의 고조된 심리적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크레인은 이런 긴장된 상황에 물리케 된 등장 인물의 심리의 흐름을 여러 장면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면서 묘사한다. 비록 난장이가 단순한 등장 인물이지만 독자는 연속적인 위기의 순간을 거치는 사실적인 인물로 그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극한 상황에 쉽사리 흔들리고 동요하는 난장이의 심리묘사는 후에 헨리 플레밍에서 더욱 더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되면서 발전된다. 일단 정상에 오르자 난장이의 태도는, “손을 거만하게 주머니에 넣고 산 아래를 으스스대며 내려다본다”라는 작가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자신이 크나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낸 듯하게 거만함을 띠며 변하게 되는 것이다(102).

하지만, 아무리 난장이가 통쾌한 승리감을 느낄지라도 “그의 발아래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크레인은 작품을 끝맺으며 또 다시 인간의 한계를 암시한다. 비록 난장이가 자신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느끼며 기뻐할지라도 그것은 이기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상상력 때문에 즐거워할 뿐인 것이다. 비록 크레인이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다른 작품들도 두려움, 영웅적인 행동 등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두려움과 자아도취가 자신의 자연과 다른 동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낸 곳은 「최면의 산」에서이다. 이 단편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난장이는 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최면」에 걸린 것이다.¹²⁾

10) 난장이의 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붉은 무공혼장』에서 헨리 플레밍이 던진 술방울에 놀라 도망치는 토끼의 반응과 같다.

11) 이 장면 역시 『붉은 무공 혼장』에서 헨리 플레밍이 마치 마귀에 홀린 듯이 연대기를 휘두르며 적진에 뛰어 드는 모습과 흡사하다.

12) 버나드 와인스타인(Bernard Weinstein)이 평하듯이, 이 난장이의 모습에서 “거인의 나라 속의 난장이”(Lilliputian stature in [a] Brobdingnagian world)의 속좁음을 독자는 느끼게 된다 (14).

IV

케이디의 주장대로 우리가 『썰리반 마을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단편 각각은 낙천적이고 밝은 색조가 작품 전체를 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썰리반 마을’이라는 곳이 19세기 말 도시의 발전으로 미국 사회가 혼란이 심하던 때에, 그 때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르네상스 혹은 낭만주의 문학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전원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그곳에서 난장이, 똥똥이들을 포함한 네 명의 야영군들에게 숲 속의 평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비록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 등장 인물들이 가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모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원 상태의 평화로움으로 돌아가게 되기에 크레이인 후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이인 특유의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앞의 본문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런 밝은 모습의 묘사 속에서도 크레이인은 인간사 혹은 심리 내부에 내재해 있는 어두운 면도 관심을 가진다. 자기 친구들에 대한 난장이의 거만하고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가 썰리반 마을이란 곳에 역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크레이인은 알았고 그것을 그의 작품에 묘사했던 것이다. 「곰사살」에서는 난장이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죽어 가는 꿈을 으스대면서 발로 차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둥굴 속의 네 남자」와 「헝클베리 푸딩의 부르짖음」과 「고함치는 나무」 등에서는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위상만을 지키려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귀신의 회계원」과 「최면의 산」 등의 단편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이 플롯의 전개와 함께 생생하게 묘사된다. 실로, 크레이인의 초기 소설인 『썰리반 마을 이야기』에서 이런 인간의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이 낙천적이며 때때로 희극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며 종종 긴장감이 야기된다. 독자는 희극적인 플롯의 전개를 따라가면서도 동료에게 “위로는 앓고 훈계”만을 일삼는 등장 인물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런 인간의 양면 묘사에서 야기되는 긴장감을 독자는 작품에서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크레이인의 후기 걸작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생이나 인간사에 대한 깊이 있고 복잡한 묘사와 비교하여 『썰리반 마을 이야기』의 작품들이 질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등장 인물들은 헨리 플레밍이나 네 명의 선원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말다툼을 즐길 뿐이고, 이야기의 끝까지 변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 사실 크레이인은 『썰리반 마을 이야기』를 발표했을 당시 도시의 더럽고, 추하고, 심지어 때때로 잔인한 삶을 충분히 체험해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비록 『썰리반 마을 이야기』를 썼을 당시 예리한 시각으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천재성을 크레이인이 가끔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삶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완전히 체험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중에 크레인이 뉴욕의 슬럼가, 미국의 황량한 서부, 전쟁터들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이나 자연에 대한 보다 심오한 이해를 갖는 등장 인물을 그렸을 때, 비로소 크레인의 “예술적 승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터틀턴 50).

참 고 문 헌

- Åhnebrink, Lars. *The Beginning of Naturalism in American Fiction*. Cambridge, Harvard UP, 1950.
- Benfey, Christopher. *The Double Life of Stephen Crane*. New York: Alfred A. Knopf, 1992.
- Cady, Edwin. *Stephen Crane*. Boston: Twayne Publishers, 1980.
- Cazemajou, Jean. *Stephen Cran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69.
- Crane, Stephen. *The Sullivan County Sketches of Stephen Crane*. Ed. Melvin Schoberlin. Syracuse: Syracuse UP, 1949.
- Gibson, Donald B. *The Fiction of Stephen Cran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68.
- Halliburton, David. *The Color of the Sky: A Study of Stephen Crane*.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Holton, Milne. *Cylinder of Vision: The Fiction and Journalistic Writing of Stephen Cran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72.
- LaFrance, Marston. *A Reading of Stephen Crane*. Oxford: Clarendon Press, 1971.
- Mitchell, Lee Clark. *Determined Fictions: American Literary Naturalism*. New York: Columbia UP, 1989.
- Pizer, Donald. “Nineteenth-Century American Naturalism: An Approach Through Form.” *Forum* 19 (1976): 43-46.
- Stallman, R.W. *Stephen Crane: A Biography*.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8.
- Tuttleton, James W. “‘A runaway dog like me’: Stephen Crane in His Letters.” *The New Criterion* 6 (June 1988): 49-58.
- Walcutt, Charles Child. *American Literary Naturalism, A Divided Strea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56.
- Weinstein, Bernard. “Stephen Crane: Journalist.” *Stephen Crane in Transition: Centenary Essays*. Ed. Joseph Katz. 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72. 3-24.
- Westbrook, Max Roger. *Stephen Crane and the Revolt-Search Motif*. Unpublished Disserta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1960.